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연말연시 잘 보내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신년 감사 예배

일시: 1월 1일(월) 1부(09:00), 2부(11:00)

장소: 본당

*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는 없고 온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 2024년 제 1차 성찬식

일시: 1월 7일(주일)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 성결한 삶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장소 변경

본당 1,2층 사용 → 본당 1층 사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새벽기도회 시간 변경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변경전	변경후	
05:00~05:30	주중(월~금)	05:30~06:00
	토, 주일	06:30~07:00

새벽기도회 설교 본문 변경

매일성경 본문 → 주간충현 8면에 공지된 본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충현 주일 주차시스템 변경

시행일: 2024년 2월 4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6면 참조

사랑부 겨울수련회

일시: 1월 13일(토)~14일(주)

주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요 14:26)

장소: 제2교육관 사무엘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안된 것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속에도 우리 주님의 귀한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 봅시다. 특별히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가족, 교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지도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인 말씀과 기도의 구체적 시간도 작성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2024년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구모임 장소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부

1교구	베드로홀(제1교육관 504호)	7교구	바울홀(제1교육관 301호)
2교구	본당지하 1층 B103호	8교구	빌레몬홀(제1교육관 404호)
3교구	본당지하 1층 B101호	9교구	메추라기홀(선교관 지하2층)
4교구	베다니홀(본당 1층)	10교구	디도홀(제1교육관 401호)
5교구	디모데홀(제1교육관304호)	11교구	느헤미야홀(제3교육관 101호)
6교구	갈릴리홀(본당 1층)	12교구	야고보홀(제1교육관 501호)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시: 2024년 1월 8일(월)~12일(금) 5시 30분

주제: 로마서 8장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설교: 한규삼 담임목사



날짜	본문	설교제목
1월 8일(월)	롬 8:1-2, 12-13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라
1월 9일(화)	롬 8:14-17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1월 10일(수)	롬 8:18-25	로마서와 소망의 신학: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1월 11일(목)	롬 8:26-30	성령의 간구와 그 능력
1월 12일(금)	롬 8:29-35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2024년 충현교회 사역훈련
제6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기간: 12월 31일(주일) 까지

1. 남사역반 ① 주일반 (16:30~19:00) ② 목요반 (19:00~21:30)
2. 여제자반 ① 수요반 (14:30~17:00) ② 목요반 (19:00~21:30)

평생의 기다림, 마리아

(누가복음 2:34-35)



손꼽아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다릴 수 있을지, 평생의 기다림 끝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느낌은 어떠할지에 대한 교훈을, 평생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다림의 시작이었던 그녀의 임신에 대하여 어떤 여성 신학자는, “임신 막달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뒤엉키는 시기이자 기다림이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일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아홉 달 동안 차곡차곡 쌓인 꿈과 소망이 성취됩니다. 하지만 그 성취를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거쳐야만 합니다. 미래는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므로, 설렘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뒤섞입니다. 영아와 산모의 사망률이 높은 곳이라면 그러한 감정이 더 강렬해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예비 엄마들이 그러하듯이 마리아 역시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로 두려움에 맞서며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눅 1:30-32)”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눅 1:34-37)”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임신기간의 3분의 1에 이르는 시간을,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엘리사벳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눅 1:42-44)”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산골이 울릴 만큼 큰 메아리로 선포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마리아도 찬양(눅 1:47-55)으로 화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 옮겨주셨다”는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긍휼로 살피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과의 만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눅 2:25)”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임무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위로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위로를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게 되며, 자칫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눅 2:30-32)” 시므온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시며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5절)” ‘칼로 찌르는 듯’이라는 말씀은, 마리아 평생의 기다림에 엘리사벳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환희만 있는 것은 아니라 고통이나 슬픔도 있다는 의

미이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본문의 ‘칼’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칼’이 단검임과 달리 장검이며, ‘찌름’은 문을 관통하는 듯한 찌름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방이라도 빛이 비치면 많은 먼지가 드러나듯,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칼이 찌르듯’, 모든 죄악은 드러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4절)” ‘패하거나 흥하게 된다’는 일종의 관용어로서, 영어로는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Fall and Rise)’이라 표현됩니다.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가끔 만나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한 친구는 자신의 성공비결이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흥함이 운이라면, 흥하지 아니함도 운이기에, 패함과 흥함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덮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사 8:14-15)” 흥함과 패함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멋지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주실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 되리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였지만, 그녀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렸고 또 불완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눅 2:49-50)” 예루살렘 순례에서 돌아오는 길에, 열 두 살이신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무리에서 빠져있음을 발견한 마리아는 황급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근심하며 아들을 찾던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기도 하고, 귀담아 듣기도 하며, 깊이 생각도 해보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리켜, 예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가는 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성이 보다 넓어지고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거리이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뚜렷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성의 흔적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깊은 영성을 사모하며, 분명한 목적의식에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바라는 기다림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을 향한 마지막 기다림이 완성되는 복된 성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Lifelong Wait, Maria

(Luke 2:34-35)

Rev. Kyu Sam Han

The moment when the work you have awaited long by counting with fingers is accomplished, it is not easy to express the moving emotion resounding in the heart. The lesson about how the saints who have to live a life of lifelong waiting for Jesus can await better and what the feeling that comes from the accomplishment of everything after the lifelong waiting is like can be found in the appearance of Maria. Concerning Maria's pregnancy which was the beginning of her waiting, a female theologian says, "The last month of pregnancy is a period when affirmative feeling and negative feeling are interwoven as well as it is a period of ending awaiting". The thing you have long awaited eagerly is about to happen. Now, the dreams and hopes that have been piled up one by one neatly for nine months will be accomplished soon. However, you should pass through the pains and toil of laboring childbirth for fulfillment. Since the future is known, or not known, excitement and fear, hope and discomfort get mingled. If it is the place where the infant mortality rate is high, such feeling becomes more strongly crucial. As lots of would-be mothers did so before, or now, it was said that Maria also with a positive heart and courage should be against fear and finish the time of waiting. "Then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ring forth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Highest;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Luke 1:30-32)" The angel who appeared to Maria said to her not to be afraid because she found favor with God, and let her know the name of the baby to be born. "Then Mary said to the angel, "How can this be, since I do not know a man?" And the angel answered and said to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Highest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also, that Holy One who is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Now indeed, Elizabeth your relative has also conceived a son in her old age; and this is now the sixth month for her who was called barren.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Luke 1:34-37)" The angel proclaimed to Maria who was still fearful that with God nothing would be impossible. Maria, who conceived Jesus, spent a third of the period of her pregnancy with Elizabeth who conceived John the Baptist. "Then she spoke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But why is this grant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For indeed, as soon as the voice of your greeting sounded in my ears, the babe leaped in my womb for joy. (Luke 1:42-44)" Elizabeth, seeing Maria who came to see her, proclaimed echoing loudly enough to make the hill country reverberate. Mary, who was inspired, responded with Song of Praise (Luke 1:47-55), and it was the confession of faith that "God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I hope you surely meet Jesus who is mindful of our state with mercy and restores us.

Meeting with Simeon

"And behold,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and this man was just and devout,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Luke 2:25)" Jesus, who went to Jerusalem for the purification rites, met Simeon. Through the fact that Simeon, who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completed his duty by meeting Jesus, we are able to know Jesus is consolation. When we seek a consolation other than Jesus, our faith is out of the right way and easily likely to go down to the way of worshipping idols.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Which You have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s, A light to bring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Luke 2:30-32)" Simeon proclaimed Jesus who came as a figure of a baby is a light and salvation for Gentiles and Israel. "(yes, a sword will

pierce through your own soul also),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may be revealed. (v.35)" The word, 'a sword will pierce through' means that Mary's lifelong waiting has not only the joy that she met Elizabeth and praised God with songs but also pains or sorrows, so it is the word that disciples waiting for Jesus should remember.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 and of joints and marrow,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Heb 4:12)" 'Sword' in the text is not like most short swords that appear in the Bible but means a long sword, and 'piercing' is the one like penetrating a door. Just as even the clean-looking room reveals dust at the light, owing to Jesus, 'as if a sword would pierce', every sin is revealed.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Behold, this Child is destined for the fall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for a sign which will be spoken against. (v. 34)" 'Rising and fall' is a sort of idiom, which is expressed in English as Fall and Rise. I hope you believe the one who presides the ups and downs of the world is God. I often meet friends with whom I studied in the past, and a friend who considerably succeeded socially among them says the secret of his success is 'good fortune'. If rising is fortune, not rising is also fortune, so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we have to believe in Jesus who presides absolutely rising and falling. "He will be as a sanctuary, But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se To both the houses of Israel, As a trap and a snare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many among them shall stumble; They shall fall and be broken, Be snared and taken. (Is 8:14-15)" If you realize rising and falling are all in the hands of God, even when you fall, you can fall holding Jesus' hands. It's because the one who will establish us again is Jesus. While you go with Jesus for life, and live waiting for Jesus, I hope you believe all the sovereignty belongs to Jesus.

Waiting, time to get to know God more

Maria heard the baby she conceived would be the son of God and become a king, however, her faith was still shaken and imperfect. "And He said to them, "Why did you seek Me?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tatement which He spoke to them. (Luke 2:49-50)" On the way back from the pilgrim of Jerusalem, Maria found twelve-year-old Jesus was missing and went back to Jerusalem in a hurry. Jesus, who was in the temple courts, said to Maria, who was searching for her son worrying with maternal heart,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but Maria couldn't realize the meaning of what he said. However, as she was astonished, listened carefully, and thought deeply, she got to realize little by little. That's why the time of awaiting Jesus for life can be called the time for us to know Jesus perfectly more and more as well as the period for us to gain more knowledge of knowing God. You should become blessed saints whose knowledge of God is increased through waiting, and whose faith gets deeper as time goes by. I bless your faith today becomes deeper than that yesterday, and your spirituality becomes more abundant. Spirituality is the distance from God, so when we are close to God, our spirituality is clear, but when we are far off from God, the trace of our spirituality can not be sought easily. I hope you are yearning for deep spirituality, and that you move to the place of blessings with clear purposefulness. Finally,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come blessed saints who move to the place of waiting for the Lord, who is to come promptly, and whose last waiting for the Lord is comple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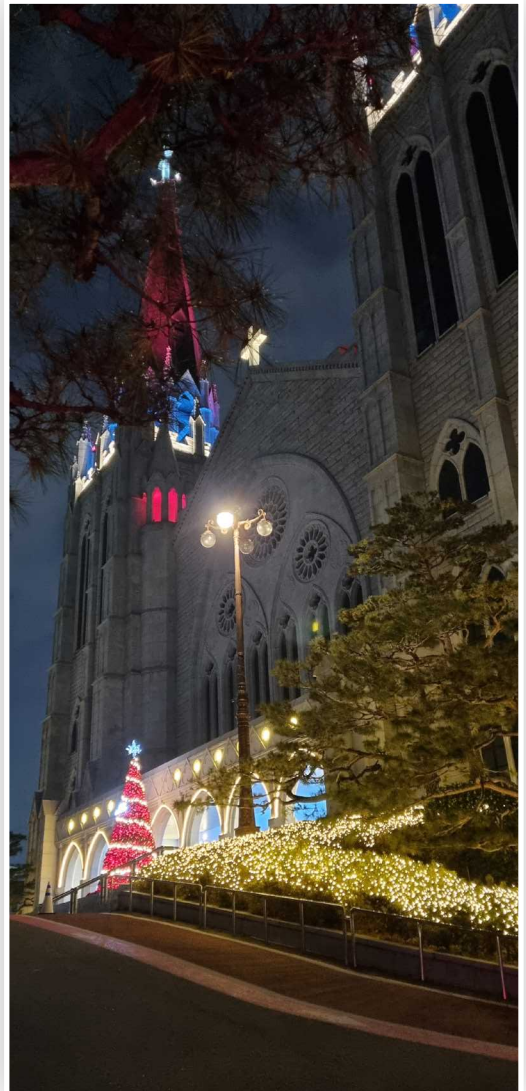
영역·이울의



△ 화평상 - 5교구 이현숙 "평안의 기쁨"



△ 희락상 - 12교구 김욱
충현교회에 내려앉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화평상 - 5교구 김영희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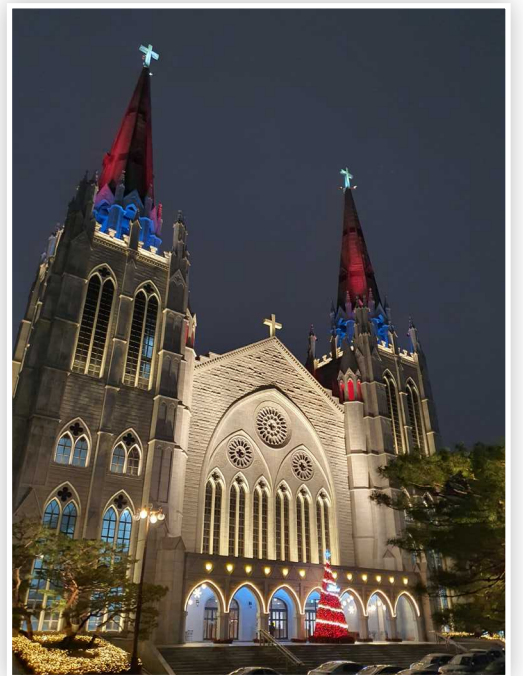
성탄트리 콘테스트 Christmas Tree Contest



△ 은유상 - 12교구 김정선
트리 점등식 첫 날 딸 아이와나 참석 전에 한 컷~



△ 은유상 - 2교구 박서정
성탄을 알리는 아름다운 충현교회의 야경



△ 은유상 - 6교구 최지숙
세상을 향해 비추는 참 빛!

브릿지 한해 돌아보기

작년 가을 11월 첫 주에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 청년 공동체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브릿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차세대 위원회에 속한 청년 2부에서 분리된 36세에서 49세까지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시대적으로 1인 가족이 증가하는 때를 살아가면서 브릿지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와 고민을 함께 모여 풀어나고, 뜨거운 예배 공동체로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꿈꾼 한 해였습니다. 감사하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3교육관 2층(에스더홀)으로 새롭게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복음 안에 더 견고히 세워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실제적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충현의 다음 세대로 귀한 믿음의 유업을 상속받는 대표 주자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커플들도 많이 생겨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청년부에서 청년1부, 청년2부로 바뀌고 작년11월, 청년2부에서 브릿지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브릿지 공동체에 소속되는 나이의 형제 자매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가면서 나름의 기준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주 모입니다. 1주년이 막 넘어간 올해 마지막달에는 2교육관 2층에서 3교육관 2층으로 이사도 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 많은 변화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더욱 기대되는 브릿지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정희 자매



브릿지 공동체가 새로 생기고 오히려 걱정이었던 것은 이 나이에 사람들이 일터에서의 위치로 인해서 바쁘고 지친 한 주간의 삶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니 서로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다가왔고 찬양과 설교가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황인욱 형제

브릿지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 입니다. 또한 함께 즐거운 교제와 소그룹 등의 활동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은희 자매

지난 1년은 어쩌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비록 재료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자재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반드시 성전을 세우고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승근 형제



2024년 기원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찬송가 2장

(통일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

송영 Tate and Brady, 1696
보통으로

To Father, Son, and Holy Ghost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지라도 (시 113:2)

ORTONVILLE: 8.6.8.6.6.
T. Hastings, 1837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 삼 위일 체 께 영원 무궁 하

기까지영 광 을돌 리 세 영 광을돌 리 세 아 멘

이 찬양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찬양으로 한국에서는 [신증 북 음가] (1924년, 210장)에 헤이스팅스 (Thomas Hastings, 1784~1872)의 곡조로 처음 수록되었습니다.

- 가사 : 가사는 소영광송(Gloria Patri)에서 온 것입니다. ('소영광송'은 '소송영'이라고도 불리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불려오던 성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짧은 시귀의 노래입니다.)

- 곡 : 곡명 "ORTONVILLE"(오르튼 빌)은 미국의 찬송 작곡가 헤이스팅스가 영국의 침례교 목사 스텐넷 (S. Stennett)의 찬송시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빛나

고 높은 보좌와, 27장)의 곡으로 작곡하여 뉴욕에서 발간한 헤이스팅스의 찬송곡집(Manhattan College, 1837)에 처음 수록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이 곡은 2장과 27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요,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유일한 분입니다. 2024년 총현의 주일 예배시간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삼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2월부터 주일 주차시스템이 변경됩니다

※ 주일 '종일주차'와 '일시주차'로 바뀝니다!

매주일 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 차량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이용시간에 따른 구역으로 재편하여 효율적인 운용으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 주차구역 구분 및 스티커 부착

가. 종일주차구역 지정 : 주일에 아침부터 계속 주차하는 차량

- 주차대상 : 아침 09:30 이전부터 '찬양예배시간' 또는 이후까지 주차하는 차량
- 주차구역 : 본당 지하2층 주차장, 제2교육관 지하1-4층 주차장

- 초록색 주차장 (초록색 주차스티커 부착차량)

나. 일시주차구역 지정 : 종일주차 제외차량

- 주차대상 : 종일주차대상 시간 외 주차하는 차량
- 주차구역 : 지상주차장, 본당 지하1층 주차장, 기타

- 주황색 주차장 (주황색 주차스티커 부착 차량)

※ 대상차량에 해당구역 스티커부착 : 주일에 해당 주차구역에만 주차가능 (주차스티커 제작 후 지급)

2. 대중교통 및 카풀이용 캠페인 진행

-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 또는 대중교통이 용이한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같은 교구 또는 지역의 경우 카풀이용을 권장합니다.

3. 성도님들이 협조할 사항

가. 차량에 주차스티커(초록 또는 주황)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 주차스티커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해당 주차구역(초록, 주황)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나. 차량안내봉사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세요.

다. 통로 주차 시 사이드를 채우지 마시고, 예배 후 곧바로 이동해 주세요.

라. 주일 아침에 시간대별로 주차장을 오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4. 시행일 : 2월 4일부터 시행 - 문의 : 차량안내부장(신현욱장로) 010-3137-0879

< 총현교회 봉사위원회 차량안내부 >

은퇴의 기도

- 임창식 장로

미련하고 음란하며 이기주의적이며 교만한 자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됨에서 건지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나를 감싸시며,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 헤매는 자에게 천국의 상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며 때때로 선진들의 천국 입성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웃음을 머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아내와 자녀를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장로 안수 후 19년의 세월을 통하여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전도와 교육과 찬양의 은혜를 주시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늘 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헤매 때, 사랑의 채찍으로 교회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살아온 삶이 허무와 수고와 슬픔 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친(박성기권사, 1989년 소천)의 눈물의 새벽기도와 중풍 가운데(11년)에서도 하루 3번씩 꼭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로 하여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살전 5:16-18), 미흡하나마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종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에 맞추어 새롭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모세와 같이 살 날을 계수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겸손히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무익한 종으로 주님의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길 소원합니다(시편 23:1-6),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믿음과 코람데오의 신앙을 끝까지 품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3.12. 은퇴를 맞이하며



청년3부 연탄봉사 후기

충현교회 청년3부는 이웃사랑사역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9일에 연탄봉사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구룡마을의 주민분들에게 연탄 2000장을 기부하였고, 필요한 가정에 연탄을 배달해드렸습니다. 청년3부 회원 27명과 자녀들 20명이 함께한 연탄봉사사역은 섬김을 받는 이와 섬기는 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공사관련 통행제한 안내

1. 본당 지하1층 주차장 공사
일정: 2023.12.11~ 2024. 1.16
본당 지하2층은 사용가능(통행은 본당 내부계단, 선교관 지하계단, 교회외곽 인도 이용)
2. 제1교육관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 11인승 교체(2023.12.14 ~ 2024. 1.12) 16인승만 사용가능
16인승 교체(2024. 1.12 ~ 2024. 2. 8) 11인승만 사용가능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해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신고용 / 1월 14일부터 발급 가능)

- ※ <주일헌금>, <지명헌금>은 개인헌금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헌금자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동반헌금자는 가능) 교적번호가 같은 가족이라도 합산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재발급이 안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디모데스마트성도앱' 검색 후 설치
 - 교회이름/담임목사이름 입력 → “내용보기” 클릭 후 동의 → 이름, 전화번호 입력 → 6자리 인증번호 입력 후 가입완료
-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이용 발급
- ① 증명서(기부금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②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개인출력’ 또는 ‘사업자출력’을 선택합니다.
 - ③ 금액이 이상한 것 같은 경우 ‘확인요청’을 눌러 교회에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 ④ 개인출력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정보를, 사업자출력을 선택한 경우 사업자정보를 입력합니다.
 - ⑤ 기부금증명서의 발급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금액수정은 동반헌금인 경우 출력가능 금액만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⑥ ‘발급’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 ⑦ ‘PDF’ 저장 또는 이메일로 ‘PDF 발송’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 ※ 선교관 1층 사무국 회계과로 직접 오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 사무국 회계과 / 02)562-1915 또는 070-5077-8865

예배 담당(1/3~1/7)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3	수요 I	보게 되었노라! (요 9:1-12) 이영국 목사	강성은	이국숙
1/5	금요집회	본이 되는 교회 (살전 1:5-10) 권혁근 목사	윤준식	
1/7 제1차 성찬식	주일 I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자! (엡 6:11-13) 한규삼 담임목사	김승래	신현욱
	주일 II		문진호	박노익
	주일 III		권순동	김충식
	주일찬양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벧전 2:9-10) 박요셉 목사	김유석	황윤성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1~1/7)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 (월)	임대영/황윤성	시 21-12	전교인
2 (화)	김상래/지규성	시 31-8	전교인
3 (수)	박성덕/권영일	시 41-8	전교인
4 (목)	김주한/김기태	시 51-12	11교구
5 (금)	권순동/김석동	시 61-10	1교구
6 (토)	강성은/강성은	시 71-17	전교인
7 (주)	남성경/남성경	시 141-7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임진실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10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예과 양육부	어와나부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에스다홀(제3교 2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예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 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235	이신애	청년2부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228	임제민	기본과정	
2	2229	박혜선	기본과정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224	박준범	기본과정	
2	2233	손화영	기본과정	문현욱
3	2234	곽민정	기본과정	이정숙
4	2236	김기석	기본과정	

별 세

1. 이문구 은퇴권사(송준엽 집사, 송준학 성도의 모친-최금란 집사, 카토노조미 성도의 시모, 2교구/송영진 집사의 모친-이강호 집사의 장모, 5교구)/22일 별세, 25일 장례
2. 정옥화 은퇴권사(이은정 성도의 모친, 2교구)/23일 별세, 26일 장례
3. 배옥출 타교집사(안정희 권사의 모친-정수일 집사의 장모, 5교구)/24일 별세, 26일 장례
4. 이상림 집사(이영주 집사의 모친, 6교구/이광주 권사의 모친-윤옥식 집사의 장모, 8교구)/24일 별세, 27일 장례
5. 권영호 집사(박정윤 권사의 남편-권은경, 권리해 성도의 부친, 8교구)/27일 별세, 29일 장례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행정위원	신광철 행정위원	이상석 행정위원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이성섭 재정위원	장철규 건축위원	이보신 새가족위원	이상해 기도원원감
김성호 행정위원	조종민 전도위원	이상복 봉사위원	지규성 선교위원장	최민석 선교위원
김명성 이연찬양대장	이창희 행정위원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함벨트연양대장	최현규 건축위원	남용승 봉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세울위원장	허만선 충현동산이사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전도위원
양효민 당회서기	박원화 봉사위원장	이상배 당회부서기	박명근 8교구장	김중훈 건축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건축위원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선교위원	김철남 안내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새가족위원장	강태영 의선부장	장기락 뱌엘찬양대장	홍순길 교육위원장
정인욱 기획위원장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찬양위원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헌금부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선교위원	김세중 임마누엘찬양대장	한홍연
최규옥 7교구장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중보기도부장	문영규 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차량안내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12교구장	

■ 목사

이기영 목회연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예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9교구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주간충현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1교구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이일영 청년1부
이영국 새가족	남성경 고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10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	------------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혜균	윤맹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지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틸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진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섭	홍정화		